



綠담笑담

녹색행복 : 쌍쌍아카펠라를 아시나요?

#소담 #쌍쌍아카펠라 #세계 환경의 날
#환경 버스킹 #지속 가능한 삶

김은형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쌍쌍아카펠라 회장)

세계 환경의 날과 '환경 버스킹'의 경험

오늘은 '쌍쌍아카펠라' 회원들과 함께 '세계 환경의 날' 행사에 초대받아 '환경 버스킹'을 하고 돌아왔다. 이번 행사에서는 대구 습지 사진전, 아이들이 참여하는 '환경 골든벨', 환경 버스킹을 선보였고 여러 체험부스에서는 '환경체험마당'이 열렸다. 나도 부스를 둘러보다가 '시민이 만드는 햇빛 발전소'에서 햇빛에너지의 주인이 되기 위해 얼마간의 약정을 하기도 했다.

환경의 날은 1972년 6월 5일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국제사회가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해 공동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한 첫 번째 국제회의를 계기로 유엔이 제정한 날이다. 환경 보전을 위해 열렸던 첫 회의 후 50여년이 더 지났는데 지구가 더 좋아졌기 보다는 염려했던 대로 지구 환경은 점점 더 악화되었고 기후는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하지만 다행히도 지구가 아파할수록 지구의 처지에 공감하고 지구를 살리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도 늘어가고 있다. 대구녹색소비자연대(이하 대구녹소연)도 오래 전부터 지구환경과 인간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단체 중의 하나다. 대구녹소연은 시민들과 함께 자전거 캠페인, 녹색 소비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공유 및 친환경 제품 만들기 활동을 해왔다. 우리 '쌍쌍아카펠라'는 시민들 일상의 문화적 삶을 바꾸어 지속 가능한 삶을 실천하고자 하는 노래 부르기 클럽으로 작년에 대구녹소연의 인준을 받아 공식 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쌍쌍아카펠라'의 시작과 성장

처음부터 '쌍쌍아카펠라'가 대단한 뜻을 가지고 모여서 노래한 것은 아니었다. 술자리를 더 유쾌하기 위한 방법이 '아카펠라' 노래 부르기 같다는 말을 흘려듣지 않은 대구녹소연 정현수 대표가 어느 날 지도 선생님을 섭외했다며 맘 맞는 사람들끼리 노래를 함께 부르자고 제안을 하였다. 그때는 정 대표가 정말로 술자리를 즐기기 위해 함께 노래를 부르는데 열심이라고 생각했었다. 사실 정 대표는 다 계획이 있었는데....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을 모르고 훌쩍 속아 넘어간 게 잘한 일이었던 것 같다.

아카펠라는 원래 무반주 다성 음악을 뜻했는데 요즘은 의미가 확장되어 무반주 합창곡을 뜻하기도 한다. 우리는, 아니 적어도 나는 술자리에서 악기 없이도 우리의 목소리만으로 노래를 부르고 즐겨보자는 마음으로 열심히 노래를 불렀다. 하지만 노래 실력은 그렇게 빨리 늘지 않았다. 더군다나 악기 없이 노래를 한다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았다. 노래 부르는 것에 발전도 별로 없어서 흥미가 점점 시들해져 갈 즈음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다. 환경과 관련된 '3무 운동'과 'RE100' 노래를 새로 만들어 부르는 일이었다. 우리가 딱히 환경노래 부르는 것에 지향점을 두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노래를 생산해서 함께 부른다는 것은 매우 매력적이면서도 의미 있는 일이어서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었다.



노래와 함께 변해가는 정체성



그때부터 우리 노래 모임의 정체성이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에게 노래를 가르쳐 주시던 선생님도 녹색소비문화에 관심을 갖고 작곡과 노래 보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더 큰 활력을 얻었고 환경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 여러 무대에 서기도 했다. 그렇게 환경과 관련한 무대의 경험을 쌓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봐주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가 지구를 살리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의미 있는 일은 노래를 부르는 회원들 스스로가 노래 부르는 것을 즐기게 되었다는 것이다. 지루하면서도 때로는 고된 일상에서 잠깐 비켜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즐거운 일이다.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연습하는 시간은 짧지만, 그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기쁨의 힘은 스스로의 자리를 새롭게 정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한다. 이것이야말로 지구가 인간에게 원하는 것이 아닐까? 자신의 일상을 기쁨으로 채우는 사람은 감사할 것이고, 현재에 감사하는 사람은 욕심을 부리지 않을 것이고,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소비를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우리 환경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일상에서의 기쁨을 캐낼 수 있는 노래 부르기라는 도구를 갖는 것이 위기로 치닫고 있는 환경을 살릴 수 있는 한 방법이 되길 간절히 바래본다.

위기 속에서도 노래는 계속된다

어제 TV에서 스위스의 빙하가 무너져서 한 마을이 완전히 잠겼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한가하게 노래만 부를 때는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잠시 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소식 때문이라도 노래를 멈춰서는 안 될 것 같다. 같은 지향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는 내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내가 노력할 수 있는지 계속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綠담笑담



전 綠담笑담 살펴보기